2022 경기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가팀 및 프로젝트 선정 심사평

최종 2팀이 올라온 프로젝트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휘포터리의 '수리수리 마을수리 우리동네 꽃단장' 사업이 선정되었다. 선정되지 않은 1팀은 주로 조형물 위주의 공공미술로. 심사 항목인 지역성, 지역민 참여 등의 과제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프로젝트로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팀은 '수리수리 마을수리 우리동네 꽃단장' 프로젝트로 환경개선에 집중돼 공공미술로서 일부 프로그램이지만, '내가 그린 도자벽화'에서 마을 주민의 참여를 도모한 것은 좋은 기획으로 보인다. 다만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기획된 여러 프로그램에 주민의 의견이나 참여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단지 한 프로그램에만 지역민 참여를 도모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그럼에도 '수리수리 마을수리 우리동네 꽃단장' 사업은 다른 경쟁사업에 비해 지역민의 참여와 커뮤니티 중시의 콘텐츠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최종 선정되었다.

2022 경기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가팀 및 프로젝트 선정 심사평

○ 지역성과 장소성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프로젝트가 없어 아쉬움.

○ 향후 보다 창의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학교를 중심으로 제안한 팀에 대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공공예술의 의미와 결과를 도출하기 바람.

○ 평생학습센터 광장에 설치하는 조형물을 제안한 팀은 조형의 모티브와 장소적 특징의 부합이 부족하고 조형적 창의성이 미흡함.

○ 선정된 팀은 철저한 계획과 실행으로 성과를 내기 바람.

2022 경기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가팀 및 프로젝트 선정 심사평

(1)‘공공미술’이라는 정책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이를 해석하고 풀어내는 ‘작가’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공공성에 대한 해석과 이를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작품 자체가 가져야 하는 예술성 주민참여, 장소에 놓였을 때 발휘되는 힘 들을 고려하면 두 가지 제안은 극명하게 다르게 보인다.

(2) <수리수리 마을수리 우리동네 꽃단장>은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에 대한 부분을 계획했지만, 결국 제안한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한 공공미술의 결과물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참여는 형식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보인다. 다만 낙후된 학교 공간을 바꿔낸다는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았다.

(3) <도자예술과 여강>은 조형물 하나를 잘 만드는 것이 곧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듯하다. 과정, 참여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놓인 작품이 곧 공공성을 만든다.’는 가정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 단체가 제시한 작품의 예술성이 ‘공공성’을 만들어 낸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공공미술’ 정책을 과하게 협소히 접근하고 해석했다.